군수 부인 1억 헌금

5·31 선거 출마 '선거법 위반' 논란

"하나님과 약속…남편과 무관" 해명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한 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J군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 예정인 군수 부인 김모씨가 최근 다니던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냈다.

교회 관계자는 "교회 권사인 군수부인이 1월 말께 교회에 십일조 헌금 1억원을 수표로 냈다"고 말했다.

상대 후보 측은 그러나 "다니던 교회라 하더라도 상식선에 어긋나는 헌금은 선거와 표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군청이 교회 기도원 인근에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교회 측과 사이가 나빠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군수 부인 김씨는 그러나 "오래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으로 남편과는 무관하다"며 "집을 판 돈 가운데 1억원을 헌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으며, 선관위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검정고시 감독 소홀

친구 대리시험 대학생 적발

광주 북부경찰은 10일 고졸검정고시에서 대리시험을 치른 J대학 3학년 손모(23)씨와 시험을 부탁한 김모(24·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K공고에서 치러진 2006년도 제1회 고졸 검정고시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김씨 대신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수험표 사진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시험 감독관 허모(31) 교사에 의해 적발됐다. 손씨는 경찰에서 "친구가 부탁해 시험을 치렀다"면서 "수능시험도 아니고 검정고시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감독관 허교사에게 적발된 6교시 이전까지 5시간여 동안을 아무런 문제없이 시험을 치렀던 것으로 드러나 검정고시에 대한 감독이 허술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9일 실시된 '2006 제1회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한 수험생은 ▲광주 1천690명 ▲전남 817명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지리산 심원마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남부사무소'는 피서철 모여드는 인파가 노고단에서 발원한 맑은 계곡을 오염시킨다며 마을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리산=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지리산 심원마을 19세대 이주추진

자연환경 복원…주민 반발 거셀 듯

민족의 영산(靈山)인 지리산 노고단(1천507m)을 지붕으로 삼아 그 턱 밑에 숨어있는 '하늘 아래 첫 동네'가 철거될 운명에 놓여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남부사무소'가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시설을 철거하고 주민을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심원(深遠)마을. 백제군에 쫓긴 마한 임금의 마지막 피난처였다는 '달궁계곡'의 끝머리에 있는 해발 750m의 마을이다.

초·중학생 5명 20km 통학

심원마을은 조선 고종 때인 1800년대 후반, 약초를 캐고 토종꿀을 키우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됐다. 현재 19가구 34명이 살고 있는 이곳은 인터넷이 되지 않고 초·중학생 5명은 매일 2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다닌다.

지난 1988년 지리산 일주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진 오지 중의 오지였지만, 지금은 국내 최고의 관광지가 됐다. 매년 여름 마을을 찾는 피서객은 하루 평균 2천여 명. 벌꿀을 치고 흑염소를 기르며 생계를 꾸리던 주민들은 이제 민박집과 식당 주인이 됐다.

'지리산 남부사무소'는 그러나 이 마을을 오는 2011년까지 이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칠선계곡' '문수계곡'과 더불어 지리산 3대 계곡 중 하나로 꼽히는 '심원계곡'이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계곡 두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1ℓ 당 0.5mg과 0.6mg이었지만, 피서객들이 빠져나간 뒤인 9월에는 1.3mg으로 상승했다. 1급수의 계곡이 2급수로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관광수입으로 연평균 5천만~7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합당한 보상을 받기 전에는 절대 떠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당 개별공시지가가 30만원에 달하는 부지 1만 평을 매입하는 예산(30억원)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광수입 가구당 年 7천만원

심원마을 양효찬(45)씨는 "30여 년 전 '산에 반한' 아버지를 따라 이주한 뒤 이곳에서 보금자리를 틀었다"며 "아이들을 때묻지 않은 산천에 뛰놀게 하며 키울 수 있는 곳인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사무소는 피아골에 위치한 직전(稷田)마을(31가구 87명, 1만5천평)에 대해서도 이주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곳에도 피서철 하루평균 2천200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어 계곡 오염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나원참 〈6801〉 김종두

초등 교사 수업중 제자 성추행

광주 서부경찰은 수업 중 제자를 성추행한 나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가출 10대들 전국 돌며 강·절도

광주 북부경찰, 6명 검거

집단으로 가출한 뒤 4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절도와 강도 짓을 일삼아 오던 간 큰(?)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10일 전국을 돌며 빈 집과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치고, 강도 짓을 저지른 혐의(강도 상해)로 김군(18·고흥군 고흥읍)등 6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 등은 지난 1월 20일 밤 9시30분께 여수시 율촌면 최모(여·55)씨 집에 들어가 현금과 이불, 전기밥솥 등 4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66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달 30일께 일행 중 김모(16)양을 시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정모(28·광주시 남구 주월동)씨에게 "술 한 잔 사달라"며 접근하게 한 뒤 "어린애들을 데리고 원조 교제를 하느냐"고 협박, 정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만나 유흥비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광주·부산·여수·순천·대전 등 대도시 등을 돌며 절도 등의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수입쌀 입항저지 투쟁 농민들

여수 바닷물에 뛰어들어 시위

수입쌀 입항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농민들이 바다에 투신, 시위를 벌였다.

10일 오후 5시께 여수시 오동도 방파제 부근에서 광주·전남 농민연대 관계자 8명이 바닷물에 뛰어들었다.

15분 뒤에는 또 다른 8명이 투신, 먼저 빠진 8명과 함께 '수입쌀 저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등 구호를 외치고 농민가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

농민 50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여수신항 입구에서 수입쌀을 실은 화물선 입항저지 시위를 벌이던 중이었다.

여수해경은 경비정 7척을 급파, 8명을 설득해 구조했으며 나머지 8명은 스스로 빠져 나와 30여분 만에 해상시위는 끝났다.

농민들은 그러나 11일 미국산 가공용 현미 1만5천t을 실은 화물선이 여수 신항에 들어올 경우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농민연대 관계자는 "농도(農道)인 전남에 단 한 톨의 수입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여수신항 천막농성과 함께 해상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입항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식당서 술·밥 훔쳐먹고 잠들어 '덜미'

쌍나팔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은 40대가 또 다시 식당에 몰래 들어가 술과 음식을 훔쳐 먹은 뒤 잠이 드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여모(43·담양군 무정면)씨는 10일 새벽 3시께 북구 중흥동 박모씨(여·46)의 식당에 들어가 맥주 1병과 소주 1병, 공기밥 3그릇을 차례로 해치운(?) 뒤 바닥에서 2시간 동안 잠을 자다 아침에 출근한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여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29일 교도소에서 나온 뒤 며칠 동안 굶어 배고픔을 참지 못해 식당에 몰래 들어가게 됐다"고 진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